

Workshop 1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8(화) 09:00~10:30

워크숍 1 (최대인원 100 명)

경계를 넘어서는 움직임의 명상: 전세계의 정신적 전통을 존중하는 성스러운 춤의 축제
“**Movement Meditation Beyond Boundaries: A Celebration of Sacred Dance Honoring The Spiritual Traditions Of The World**”

프레마 다사라(Prema Dasara), 마이리다키니 나베스(Myridakini Naves), 파바티 포레스트 (Parvati forrest), 아드리안느 라브리 스미스(Adrienne LaBry Smith)/번역 안미경

요약문:

세계 평화의 춤은 전 세계의 종교적 전통에서 유래한 단순한 동작과 성스러운 구절을 이용해서 원형으로 모여 추는 춤이다. 이 춤은 각자의 종교적 유산뿐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정을 통해 평화와 조화, 그리고 치유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동심원으로 모여 춤을 추면서, 무용수들은 모든 문화 전통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탐험하고, 고양시키며, 축하하는 것이다. 이는 곧 기도의 구현이다. 이 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정수를 건드리는 단순한 음악과 노랫말, 동작을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음악이나 춤 경험도 필요하지 않다. 무용수들은 50 년 넘게 전세계에서 모여 함께 했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즐겁게 공유한 단순한 춤 덕분에 다양한 개인적, 종교적 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프레마, 마이리, 파바티, 그리고 아드리안느는 이러한 전통에 경험이 많은 진행자들이며, 각 종교 전통의 성스러운 구절 안에 나타난, 영원한 진리인 성스러운 불법의 합일을 보여줄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 환영함. 편안한 복장으로 물병을 지참할 것.

워크숍 발표자 약력

프레마 다사라(Prema Dasara): 수 십년동안 티벳 스님들의 지도아래 불교수행을 해오고 있다. 국제적 교사인 동시에 인도, 네팔, 티벳과 발리의 성스러운 춤(sacred dance)의 스승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성스러운 춤을 사사한 무용수이다. 무용의 성스러운 수행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인 타라 다투(Tara Dhatu)의 영적이며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무용감독이다. 프레마는 세계평화의 춤(the Dances of Universal Peace)의 멘토이기도 하다. 그녀의 작업은 시의적절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고대 지혜에 대한 동양적 표현과 서양적 표현 사이의 다리로 간주되고 있다.

마이리다키니 나베스(MyriDakini Naves): 타라 다투(Tara Dhatu) 교육 프로그램의 부원장이고 뛰어난 만다라 지도자이며 타라 다투 내에서 모든 타라 댄스와 춤 수행의 멘토이자 가이드이다. 그녀는 또한 세계 평화의 춤 (Dances of Universal Peace)의 리더이기도 하다. 위대한 린포체와 라마에게 바치는 춤 공양을 이끌었다. 남아메리카에서 수련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프레마와 함께 세계를 다니며 교육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파르바티 포레스트(Parvati Forrest): 타라 다투 인터내셔널(Tara Dhatu International)의 중앙 코디네이터와 교육 프로그램의 부원장으로 학생들과 교생들을 멘토링 하고 미국 국내에 주말 워크숍과 수련회를 이끌었다. 1988 년 타라 다투와 세계평화의 춤(the Dances of Universal Peace)을 접한 이래로 두 단체의 성스러운 동작명상 수행의 묘한 매력을 알아가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금강승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훨씬 더 깊이 성장해 왔고 세계의 여러 종교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지혜와 함께 행하는 심오함을 인지하면서, 역량과 영감을 주기 위해 그 가르침들을 열심히 공유하고 있다.

아드리안느 라브리 스미스(Adrienne LaBry Smith): 2005 년 이후 타라 춤을 이끄는 타라 다투의 선임 교사이고, 2008 년 이후 세계 평화의 춤 단체에서 교사로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0 년 동안 시각예술과 춤 그리고 영성을 통합하여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와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세계 종교와 문화의 성스러운 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타라 댄스와 금강승 수행으로 이끌었다. 이는 수행과 연구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스스로의 의도와 깊게 공명하고 있다.